

Issue Briefing

20131107 vol.117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국토교통부}과 전북의 대응

1.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 대두
2.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정책 동향
3. 전라북도 주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검토
4.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진

김 상 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

민 경 찬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연구원 |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 국토교통부과 전북의 대응



1.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 대두
 - 1) 전국 도로교통혼잡 현황
 - 2) 전라북도 교통혼잡 현황 및 개선사업의 필요성

2.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정책 동향
 - 1) 새 정부의 정책동향
 - 2) 국토교통부 정책동향
 - 3) 도심 교통혼잡 관련 제도 변경
 - 4) 정책적 시사점

3. 전라북도 주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검토
 - 1)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장조사
 - 2)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황분석
 - 3)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 및 시범사업 검토

4.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 1) 혼잡도로 관련 법·제도 정비
 - 2) 혼잡개선사업 제안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11월 07일 vol.117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국토교통부}과 전북의 대응

- 현재까지 정부는 효율적 전국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신규 국도건설과 확장에 주력해 왔으나 전국 주요도시의 도로혼잡이 심화되어 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도로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도로예산은 고속도로·국도건설에 90%가 집중되었으며,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예산은 2%에 불과한 실정
 - 2013년에 출범한 새 정부는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과제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 추진
- 전국 주요도시의 도로혼잡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2010년에 28.5조원에 이룸.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 확장,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요 도심지의 혼잡이 현재보다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대도시권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06년(1,709억원) 이후 2010년 까지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며, 동일 수준의 증가율이 지속 될 경우 2015년(2.4조원 추정)에는 현재의 인천광역시(약 2.5조원 추정)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교통혼잡도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6개 시지역의 혼잡도로 현장조사를 수행함

 - 현장조사 결과, 전주시 혼잡도로의 침두시 평균 주행속도는 21.3km/h로 전북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으며 서부신시가지, 전주역, 전북대 인근 지역에서 다수 분포
 - 익산시의 혼잡도로는 원광대 학교 인근에 주행속도가 13.2km/h인 혼잡구간이 나타났고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청인근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음. 남원시 1개 조사구간은 다수의 비신호교차로가 운영되어 교통혼잡이 발생
-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세부시행지침 및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연구의 교통혼잡기준(안)을 기준으로 볼때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시·군과 함께 사전 준비한 전라북도 35개소 조사대상구역 중 26개가 도시교통혼잡도로에 해당함

 - 가련광장 사거리 외 16개소(전주), 경암 사거리 외 2개소(군산), 원광대학병원 앞(무왕로)과 2공단 사거리(익산), 신역사대로(남원), 김제역 삼거리 외 2개 소(김제)가 해당

요약

〈표 1〉 한국도로교통연구원 교통혼잡기준(안)

구분	대상 도시	도로위계별 기준		
		통행속도	평균 지속시간	발생빈도
100만 이상 도시	-	15km/h이하	60분 이상	3회/일 이상
50~100만 미만 도시	전주	20km/h이하		2회/일 이상
10~50만 미만 도시	군산, 익산, 정읍	25km/h이하	30분 이상	1회/일 이상
10만 미만 도시	김제, 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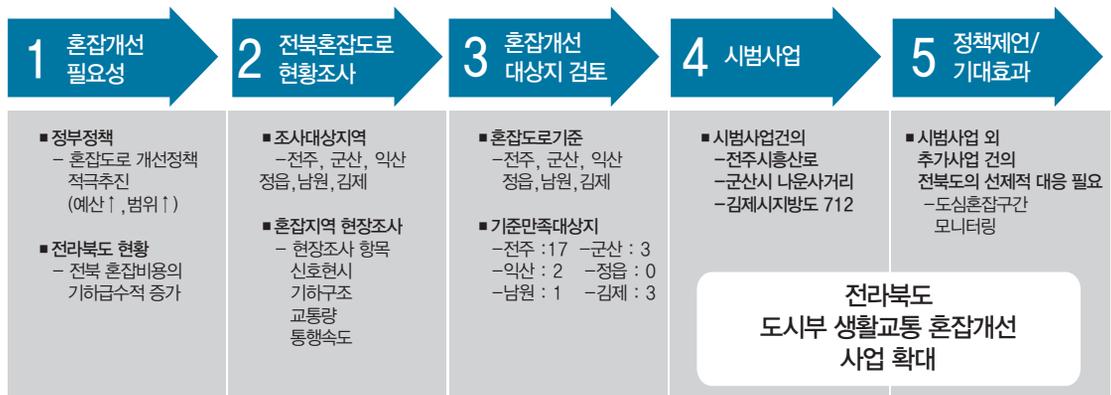
●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 대상지 리스트(안)

〈표 2〉 한국도로교통연구원 교통혼잡기준(안)

지역	사업 대상지	통행속도 _(m/s)	비고	지역	사업 대상지	통행속도 _(m/s)	비고	
시범사업	전주	홍산로	24.5	구간	전주	조촌 교차로	19.6	지점
	군산	나운사거리	17.4	지점		종합경기장 사거리	20.8	지점
김제	지방도 712호선	20.5	구간	중인삼거리~삼천교(우림로)		16.8	구간	
전주	가련광장 사거리	19.5	지점	진북터널 사거리		24.4	지점	
	금암광장 사거리	19.6	지점	효자광장 사거리		15.2	지점	
	꽃밭정이 사거리	19.4	지점	효자4자구(효암로,우전로)		15.9	지점	
	동부우회도로	21.9	구간	군산	경암 사거리	19.1	지점	
	서곡광장 사거리	18.6	지점		공단대로	24.9	구간	
	선너머 사거리	13.0	지점	익산	원광대학병원앞(무왕로)	13.2	구간	
	승암교 오거리	23.1	지점		2공단사거리	24.5	지점	
	싸전다리 오거리	18.2	지점	남원	신역사대로	18.2	지점	
	역전광장 사거리	22.7	지점		김제	김제역 삼거리	23.2	지점
	전진로	13.6	구간	성산 사거리		19.1	지점	

요약

- 연구원에서 선정한 전라북도 도시교통혼잡도로 26개 대상지 중 홍산로(전주) 외 2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홍산로(전주), 나운사거리(군산), 지방도721호선(김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혼잡개선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토교통부는 혼잡도로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3개소 외에도 23개소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전라북도 주요 도심부를 대상으로 혼잡구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부 생활교통혼잡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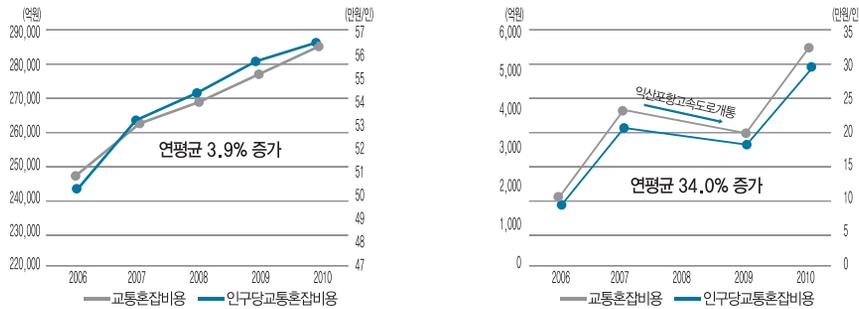
1.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 대두

1) 전국 도로교통혼잡 현황

- 전국의 교통혼잡구간은 도로혼잡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28.5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도로 상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전국 혼잡비용 28.5조원 중 18.0조원(63.4%)이 6대 광역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며, 일반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대도시의 도로율은 증가했으나 도시내 도로가용면적은 감소하여 전국 도시내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도로연장은 연평균 2.4% 증가했음에도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9.5% 감소

2) 전라북도 교통혼잡 현황 및 개선사업의 필요성

- 전라북도의 교통혼잡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이후 5년간 교통혼잡비용은 3배 이상 급증하여 전라북도의 교통혼잡은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익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전주 권은 소통이 증대되어 잠시 혼잡비용이 감소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1,709억원)이후 2010년(5,506억원)까지 증가율은 34.0%로 전국(3.9%)에 비해 높은 실정
- 또한, 전주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 확장,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할 것임. 이로 인해 전라북도 도심지의 혼잡이 현재보다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대도시권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연평균 증가율(34.0%)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전라북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에 2.4조원으로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교통혼잡비용인 2.5조원에 유사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전라북도 연도별 교통혼잡비용 및 인구당 혼잡비용 추정(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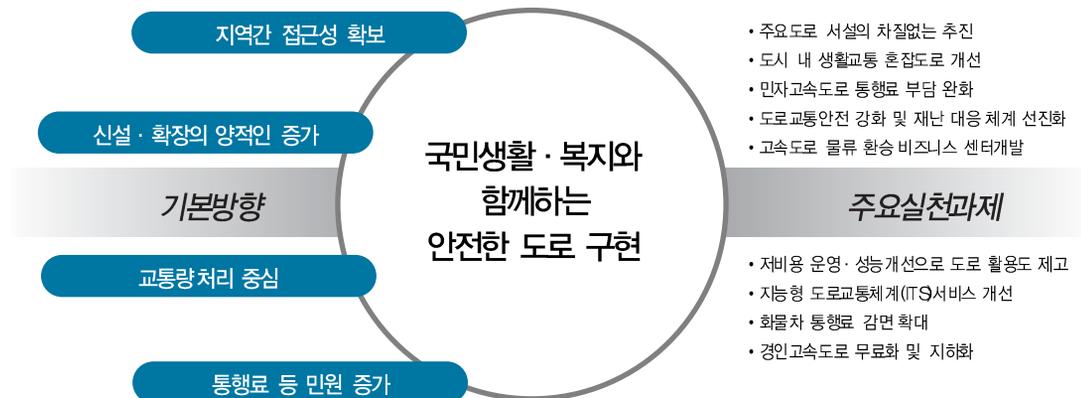
2.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정책 동향

1) 새 정부의 정책동향

- 올해 초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주로 교통체계 선진화 및 교통안전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수립함¹⁾
- 교통체계 선진화에는 간선교통망과 대도시권 광역철도·도로망 개선이 주요 목표이며, 세부적으로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정체로 인한 혼잡 및 물류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2) 국토교통부 정책동향

-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도로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도시부 혼잡해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도시 내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주요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²⁾
- 또한, 도로관련 국가상위계획의 경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정책에서 도시 혼잡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었음³⁾
 - 혼잡구간을 정비하고 시설개량을 통해 도시부 교통난을 해소



※ 자료 : 국토교통부(2013), 도로정책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

〈그림 2〉 국토교통부의 2013년 주요 정책 방향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2) 국토교통부(2013), 도로정책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
 3) 국토교통부(2011), 제2차 도로장비기본계획(2011~2020)

3) 도심 교통혼잡 관련 제도 변경

- 그동안 간선도로 건설 중심의 도로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 내 혼잡도로 해소에는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였음
 - 최근 10년간 도로 예산은 고속도로·국도건설에 90%가 집중되었으며,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예산은 2%에 불과
- 또한, 90년대 지자체 도로사업에 양여금, 교부세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2004년 말 양여금 폐지, 2011년 말 도로사업 교부세 폐지 등으로 지자체 도로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부 도로투자 활성화 및 도시 내 교통혼잡 개선에 대해 지원을 유도하고자 기존 사업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기존 6대 대도시권 대상에서 전국 82개 도시권으로 사업대상 확대 예정
 - 기존의 경우, 50% 국비지원에서 70%의 국비지원으로 예산 지원 확대 전망
 - 신설·확장 위주의 사업에서 신호운영개선 등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추진 예정
- 또한, 기존에 없는 도시부 교통혼잡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여 적용할 예정임

〈표 3〉 도시인구 규모별 혼잡도로 기준(안)

구분	대상 도시	혼잡기준		
		통행속도	평균 지속시간	발생빈도
100만 이상 도시	서울특별시	15km/h 이하	60분 이상	3회/일 이상
	8개도시	20km/h 이하		2회/일 이상
50~100만 미만 도시	13개도시	25km/h 이하	30분 이상	1회/일 이상
10~50만 미만 도시	49개 도시			
10만 미만 도시	1개 도시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2),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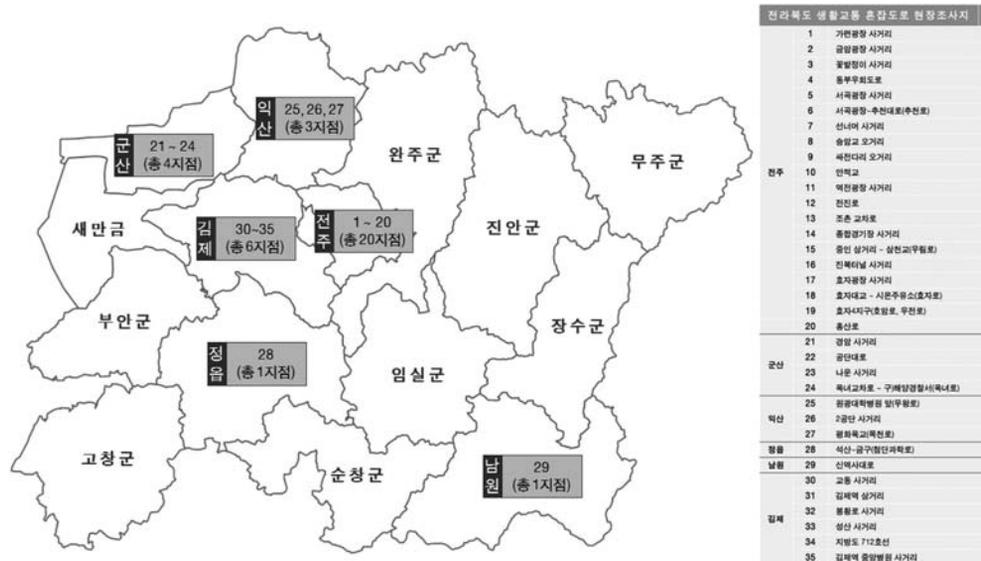
4) 정책적 시사점

- 현재까지 정부는 효율적인 전국 도로망의 구축을 위해 신규 국도건설과 확장에 주력해 왔으나, 전국 주요도시의 도로혼잡이 심화되어 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음. 이에 새 정부는 도로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동향에 따라 전라북도 또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사업」의 사업 범위에 반영되도록 지역의 혼잡도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3. 전라북도 주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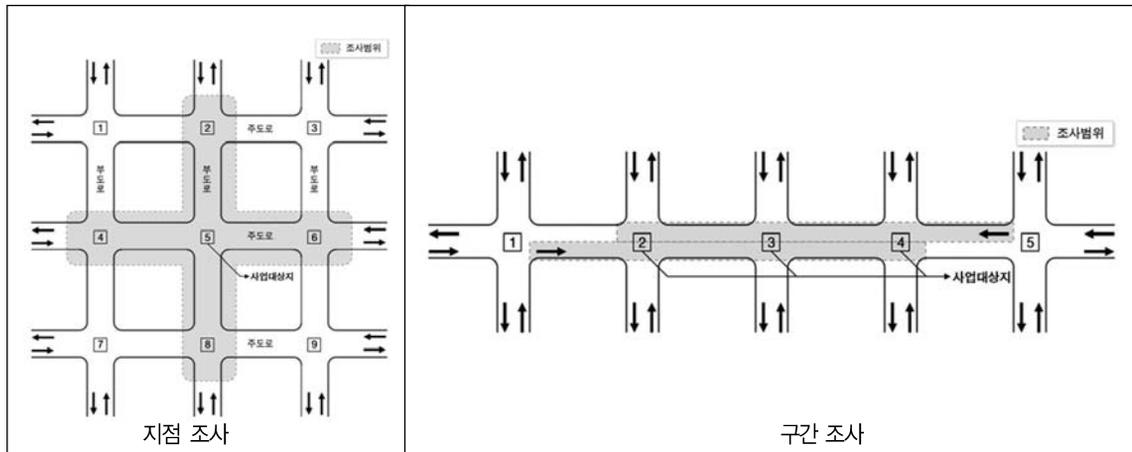
1)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장조사

-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교통혼잡도로 대상지를 검토하고자 전주시 외 5개 시의 혼잡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사업」 대상도시에 해당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로 설정
- 대상도시의 지자체별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혼잡구간과 그 이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추가하여 총 35개 소의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조사 대상구역(안)을 제안함



〈그림 3〉 전라북도 주요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장조사 대상지

-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도로기하구조, 교통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을 수행함
 - 2013년 7월 8일부터 8월 2일 까지 총 4주간 현장조사 실시
 - 단일 교차로는 지점으로 정의하고 조사범위는 대상지점과 직결된 연접교차로임. 또한, 역순된 교차로가 구간인 경우 대상지의 교차로 상류부를 대상으로 함
 - 각 대상지점 및 구간의 도로기하구조와 침두 및 비침두시의 신호현시, 방향별 교통량, 통행속도, 보행자 횡단신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도를 분석하였으며, 자전거 및 보행자 교통량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음



〈그림 4〉 지점 및 구간 현장조사 개념도



〈그림 5〉 교통혼잡 개선사업 1차 사업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

2)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황분석

-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의 수준분석을 실시함
- 일반적으로 통행속도, 통행시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을 사용하며, LOS는 6단계(LOS A~LOS F)로 구분하여 서비스 수준을 나타냄⁴⁾
 - LOS A는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고 조작 자유도가 높으며,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이 매우 큼
 - LOS F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도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선 상태로 해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자주 멈추고 운전자의 안락감은 매우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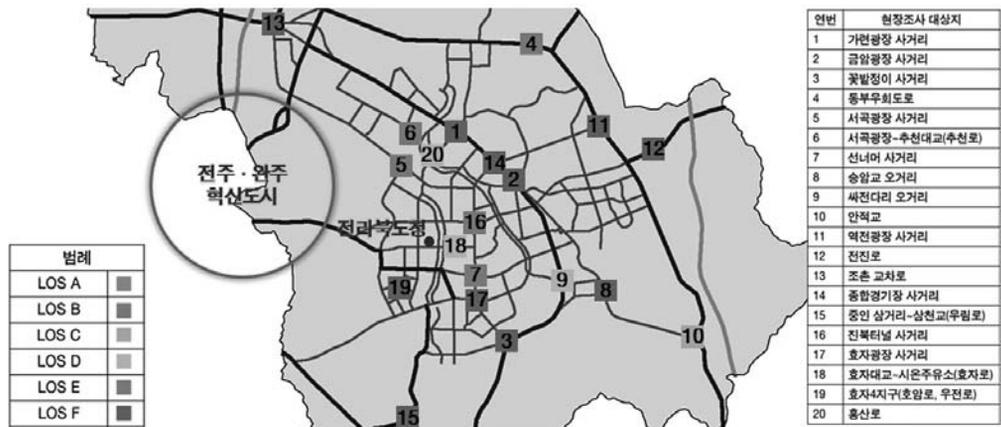
4) 대한교통학회(2001), 도로용량편람

- 또한, 국내 도로는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일 서비스수준(예, LOS F)임에도 질적으로 다른 형태(LOS F, LOS FF, LOS FFF)로 세분화되며 LOS FFF일수록 극도로 혼잡한 상황을 의미함

A		자유교통류
B		안정된 교통류
C		안정된 교통류
D		안정된 교통류 높은 밀도
E		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
F		강제류 또는 외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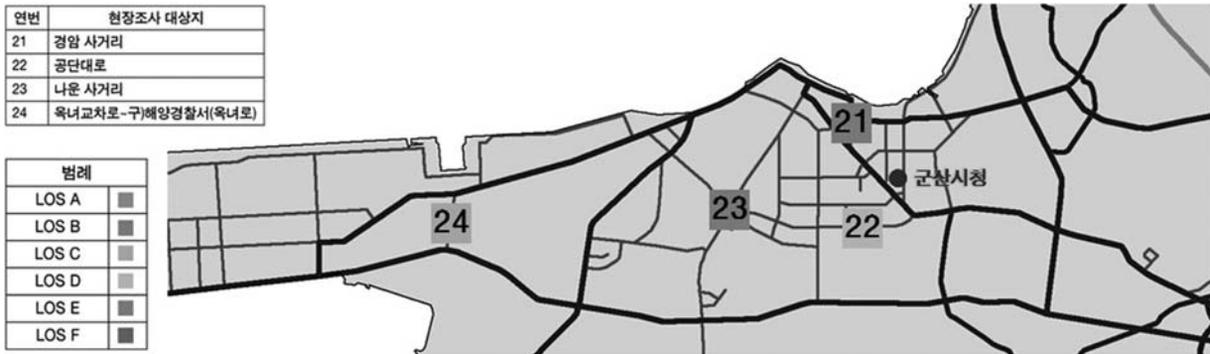
〈그림 6〉 서비스수준 개념도

- 전주시는 총 20개소(6개 조사구간, 14개소, 교차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조사대상지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높게 관측되었지만 혼잡도로의 침두시 평균 주행속도는 21.3km/h로 전북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편임. 전주시 내부에서 서부신시가지, 전주역, 전북대 인근에 다수가 분포함
 - 대표적으로 역전광장 사거리는 침두시 LOS가 FF로 가장 혼잡하였으며, 그 외 가련광장 사거리, 금암광장 사거리 등이 LOSF로 혼잡이 매우 큼



〈그림 7〉 전주시 현장조사지점·구간 분석결과

- 군산시는 총 4개소(2개 조사구간, 2개소 조사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평균 통행속도는 27.7km/h로 전라북도 평균(24.3km/h)에 비해 높으며, 군산시청 인근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군산시 지역 내에서 낮게 나타남
 - 군산시 내 가장 혼잡한 지점은 나운 사거리로 분석 기준 상 첨두시 LOS E, 비첨두시 LOS F로 나타났으나, 혼잡에 정도는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8〉 군산시 현장조사지점·구간 분석결과

- 익산시는 3개소의 조사구역(2개 조사구간, 1개소 조사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원광대학교 인근에 주행속도가 낮은 혼잡구간이 존재함
 - 익산시내에서 가장 혼잡한 지점은 원광대 인근의 원광대학병원 앞 무왕로 구간으로 주행속도 13.2km/h, 서비스수준 LOS E에 해당



〈그림 9〉 익산시 현장조사 지점·구간 분석결과

- 정읍시와 남원시는 각각 1개 조사구간, 1개소 지점이 조사되었으며, 정읍시의 조사구간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원시의 조사지점은 다수의 비신호교차로 운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읍시는 LOS B, 주행속도 52.5km/h로 조사되었으며, 남원시 왕복 6차로인 신역사대로는 교통량이 1,700대/시 수준으로 적은 편이나 주행속도 18.2 km/h, 서비스 수준 LOS E로 혼잡도로에 해당함



〈그림 10〉 정읍시, 남원시 현장조사 지점·구간 분석결과

- 김제시는 총 6개 구역(1개 조사구간, 5개소 지점)을 조사했으며, 평균속도가 25.9km/h로 조사됨. 또한 2개소 지점이 LOS E로 분석되어 김제시청 부근에 도로혼잡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김제시 현장조사 지점·구간 분석결과

〈표 4〉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생활교통 혼잡도로 평균통행속도 및 서비스수준

지자체	생활교통혼잡도로 현장조사지		평균통행속도(km/h)	서비스수준	비고
전주시	1	가련광장 사거리	19.5	F	지점
	2	금암광장 사거리	19.6	F	지점
	3	꽃밭정이 사거리	19.4	F	지점
	4	동부우회도로	21.9	E	구간
	5	서곡광장 사거리	18.6	E	지점
	6	서곡광장~추천대교(추천로)	41.2	B	구간
	7	선너머 사거리	13.0	E	지점
	8	승암교 오거리	23.1	F	지점
	9	싸전다리 오거리	18.2	D	지점
	10	안적교	30.6	C	지점
	11	역전광장 사거리	22.7	FF	지점
	12	전진로	13.6	F	구간
	13	조촌 교차로	19.6	F	지점
	14	종합경기장 사거리	20.8	F	지점
	15	중인 삼거리 ~ 삼천교(우림로)	16.8	F	구간
	16	진북터널 사거리	24.4	E	지점
	17	효자광장 사거리	15.2	F	지점
	18	효자대교 ~ 시온주유소(효자로)	27.6	D	구간
	19	효자4지구(호암로, 우전로)	15.9	F	지점
	20	홍산로	24.5	D	구간
	평균		21.3	-	-
군산시	21	경암 사거리	19.1	E	지점
	22	공단대로	24.9	D	구간
	23	나운 사거리	17.4	E	지점
	24	옥녀교차로 ~ 구해양경찰서(옥녀로)	49.5	C	구간
	평균		27.7	-	-
익산시	25	원광대학병원 앞(무왕로)	13.2	E	구간
	26	2공단 사거리	24.5	D	지점
	27	평화육교(목천로)	51.2	B	구간
	평균		29.6	-	-
정읍시	28	석산~금구(첨단과학로)	52.5	B	구간
남원시	29	신역사대로	18.2	E	지점
김제시	30	교동 사거리	25.5	C	지점
	31	김제역 삼거리	23.2	E	지점
	32	봉황로 사거리	35.8	C	지점
	33	성산 사거리	19.1	E	지점
	34	지방도 712호선	20.5	D	구간
	35	김제역 중앙병원 사거리	31.0	C	지점
	평균		25.9	-	-
전라북도 평균			24.3	-	-

3) 전라북도 도시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 및 시범사업 검토

-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세부시행지침 및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시규모별 혼잡기준에 따라 전주시는 50~100만인 미만 도시, 군산, 익산, 정읍시는 10~50만인 미만 도시, 김제시, 남원시는 10만인 미만 도시에 해당되며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 예정

〈표 5〉 전라북도 도시규모별 혼잡기준

구분	대상 도시	도로위계별 기준		
		통행속도	평균 지속시간	발생빈도
100만 이상 도시	-	15km/h이하	60분 이상	3회/일 이상
		20km/h이하		2회/일 이상
50~100만 미만 도시	전주시	25km/h이하	30분 이상	1회/일 이상
10~50만 미만 도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10만 미만 도시	김제시, 남원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2)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방안

- 혼잡도로 기준에 따라 도·시·군 지원 하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전라북도 35개소 조사대상구역 중 26개소가 도시교통혼잡도로 기준에 만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전주시(17), 군산시(3), 익산시(2), 남원시(1), 김제시(3)
-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전라북도 도시교통혼잡도로 26개소 대상지 중 홍산로(전주)의 2개소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후보 대상지임
 - 홍산로(전주), 나운 사거리(군산), 지방도712호선(김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혼잡개선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13〉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시범사업(좌:홍산로, 중:나운 사거리, 우:지방도712호선)



〈그림〉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기준만족 사업지

〈표 6〉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생활교통 혼잡도로 평균통행속도 및 서비스수준

지자체	교통혼잡 기준만족 사업지	평균통행속도(km/h)	비고
전주시	1 가련광장 사거리	19.5	지점
	2 금암광장 사거리	19.6	지점
	3 꽃밭정이 사거리	19.4	지점
	4 동부우회도로	21.9	구간
	5 서곡광장 사거리	18.6	지점
	6 선너머 사거리	13.0	지점
	7 승암교 오거리	23.1	지점
	8 싸전다리 오거리	18.2	지점
	9 역전광장 사거리	22.7	지점
	10 전진로	13.6	구간
	11 조촌 교차로	19.6	지점
	12 중합경기장 사거리	20.8	지점
	13 중인 삼거리 ~ 삼천교(우림로)	16.8	구간
	14 진북터널 사거리	24.4	지점
	15 효자광장 사거리	15.2	지점
	16 효자4지구(호암로, 우전로)	15.9	지점
	17 홍산로	24.5	구간
군산시	18 경암 사거리	19.1	지점
	19 공단대로	24.9	구간
	20 나운 사거리	17.4	지점
익산시	21 원광대학병원 앞(무왕로)	13.2	구간
	22 2공단 사거리	24.5	지점
남원시	23 신역사대로	18.2	지점
김제시	24 김제역 삼거리	23.2	지점
	25 성산 사거리	19.1	지점
	26 지방도 712호선	20.5	구간

4.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1) 혼잡도로 관련 법·제도 정비

-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도시부 생활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요구함
 - 주요 개정내용 : 도시부 생활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 대상사업의 범위와 국고 지원 비율 등을 개정함⁵⁾

- 관련 법제도 개정시 ① 명확한 성과목표 정립 및 평가 필요, ② 지자체 도시의 교통혼잡도 제시 및 조사방법 정립 필요, ③ 재정지원 기준 명확히 제시 필요, ④ 종합적 도시교통 혼잡관리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도시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⁶⁾

2) 혼잡개선사업 제안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

- 혼잡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실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절감하기 위해 혼잡도로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3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23개소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혼잡개선 사업지로 건의하여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이 필요
- 또한, 전라북도 주요 도심지의 꾸준한 혼잡구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시부 생활교통혼잡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혼잡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기하구조, 교통량, 통행속도 등 기초 현황 자료 구축 필요
 - 향후 지속될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 대상지 선정에 활용

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2012),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착수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 추진

6) 충북발전연구원(2013),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확보 방안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 국토교통부(2012),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착수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2013), 도로정책관'13년 업무계획 보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 목표 및 국정과제
- 대한교통학회(2001), 도로용량편람
- 전라북도(2013), 제2차 전라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사항
- 충북발전연구원(2013),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확보 방안
- 한국교통연구원(2012),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방안
- 한국교통연구원(2013),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